

[제2회 전국 목회자 세미나] 예수 그는 누구인가?

2018년 3월 19일 이현래 목사님

이런 모임이 바라고 기대하던 모임인데 저절로 생기니까 너무 좋다.

다른 종교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기독교는 <예수는 누구인가?>가 주제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거나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가 아니고,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이다. 그분을 모르고서는 아무리 기독교적인 모든 가르침을 다 따른다고 해도 그냥 종교에 불과하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사는 것은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얼마든지 많고 좋은 말씀도 많다.

성경 말씀은 좋은 말씀이 많아서 꼭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이다. 내가 믿어야 할 그 사람을 모른다.

어느 미국 선교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목사님은 무엇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느냐고 물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는 중이라고 했더니 무슨 예수를 아느냐고 했다. 다 아는 예수를~

2천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이 예수가 알려졌는가. 예수를 또 더 알 것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 말이 뻔하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독생자고 성령으로 잉태했고 이러저러한 역사를 하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다음 어느 때 온다는 것은 다 외울 수 있다. 뭘 예수를 더 아느냐고 물었다.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것이 그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다. 알고 보면 전 기독교인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모두 고심하고 있다. 이것도 잘 안 되기 때문이다.

기도도 다 해보셨겠지만 해보면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른다. 토론토의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를 세 번째 들어간다고 한다. 주변에서는 말리는데 결사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0일 금식기도를 하면 깨끗해진다고 한다. 몸도 마음도 맑아진다고 한다. 그때 느끼는 맛이 있는 것 같다. 회복하려고 나와서 물 마시고 미음 먹다 보면 점점 도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린다.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한다.

기도도 마찬가지로이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어떤 경지에 가게 되니까 그것을 느끼다가 속세에 내려오면 시간이 가면 사라져버리니까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된다.

대구에도 이 근처 산에 기도원이 있다. 금요일 저녁이면 모이는 그룹이 있는 모양이다. 주로 권사님들 그룹이다. 철야기도를 계속 하는 그룹도 있다. 교회에서도 철야기도를 공식적으로 하는 곳이 많다고 한다. 금요일 저녁은 철야기도를 하는 곳이 많은 것 같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참여를 한다.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인데 새벽에 아이들이 엄청나게 모였다. 그렇게 할수록 교회가 잘되는 모양이다. 약간 부하를 걸어야 사람이 살 재미가 나는 모양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우리 교회에 와서 뭘 하는 거냐고 묻는 사람이 많다.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교회는 뭘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되다가 하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다. 금식기도를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탕자탕자 놀아서 뭐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사람은 가만히 놀기가 굉장히 힘들다.

안식일을 생각해보라. 놀라고 하니깐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그 계명이 제일 어려운 계명이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계명이 가장 어려운 계명이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죽이라는 그런 무서운 계명이 어디 있는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책망한다면 모르겠는데, 일 한 것을 책망하는 계명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렇게 어려운 계명이고, 가장 어려운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느라고 목숨을 걸고 지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강대국 침략이 들어오면 시험하는 것이 우리를 신사참배로 시험하듯이 안식일에 가령 소집을 하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 문제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나오지 않으니까 딱 표가 날 것이다. 그것으로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신체검사를 하여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살 것 아닌가. 그런데 할례를 받고 죽는다. 우리는 죽어도 좋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지 않아도 될 일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다. 우리나라도 제사 때문에 많이 죽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안 죽어도 될 일로 죽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일이다.

만일 그때 제사를 지내면 우상숭배하는 것이고 배신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었다. 목이 잘려도 제사를 지냈다. 서울에 가면 한강변에 절두산이 있다. 거기서 목을 자르면 한강에 떨어지는 모양인데, 천주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쉬우면 못하겠는가? 다 한다. 너무 쉬우면 또 하지 않는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쉬운데 그날은 하필

할 일이 많다.

장사를 해보면 주일에 일을 하지 않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옆 가게들이 문을 여는데 내 집만 문을 닫아 버리면 내 집에 오던 단골이 가버린다. 참 어렵다.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강단에서는 주일에 일한다고 뭐라고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결단하기까지 힘이 든다. 문을 닫고 교회로 간다는 것이 어렵다.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었다. 본질적인 것은 빼놓고 본질이 아닌 것만 붙잡고 씨름을 했다.

나도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힘든 것이 없었다. 목회를 하러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겼다. 기도도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든다. 뭐가 조금만 잘못되어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

교인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70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5~6명이 빠지면 텅 빈다. 올라가서 보면 뭘 잘못해서 저런가 하고 가슴이 철렁하다. 수천명 모이는 곳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겠지만 겨우 70명 정도 되는 곳에서 2~3명만 빠져도 허전해 보인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해진다. 전에 없던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고생을 좀 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고 다니지 않던 기도원도 다녔다. 또 받아보지 않던 안수도 받아보고 할 만큼 별 짓을 다해보았다. 그 시대는 방언을 해야 된다는 시대여서 그런 교회들이 잘 되고 부흥사들도 그런 곳으로 돌아다니니까 방언을 해야 뭐가 되겠다는 생각도 했다.

방언하는 것이 성령은사를 받는 문이라고 한다. 일단 방언을 해야 그 다음부터 성령은사가 온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옆에서는 다 되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통과가 되지 않으니까 환장할 것 같았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친구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 신학교와 배우던 것과 딴 판이고 나와 보니까 안 되겠고, 교회가 이리저리 돌아가고 있는데 오순절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성경을 일일이 찾아서 써서 보냈더니 대번에 오순절 집회를 하는데 올라왔다.

첫날 앞 자리에 앉았더니 대번에 두 손 들고 난리가 났다. 나는 초대를 해놓고 냉랭하고 이 사람은 오자마자 난리가 나니까 정말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내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원해서 몇 달간 갈급하다가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는 오자마자 그렇게 되는데 나는 안 되었다.

선교사 내외분이 와서 사역을 목표로 하던 교회인데 이분들도 상당히 나에게 공을 많이 들였다. 그때 내 형편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으면 관찮다고 생각하셨다. 둘이 와서 안수하고 기도를 했는데, 성질이 그래서 그런지 안수하고 기도를 할

수록 더 냉랭해지는 것이다. 어떻게 확 뜨거워져서 섞어질 줄 알았는데 안 되었다.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 포기를 했다. 나는 안 될 사람이다. 포기해도 속에서 남아있다. 전 판이 그런 판인데 나만 포기를 한다고 되겠는가. C.C.C.에 들어가니까 C.C.C. 간사들 중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열심이 좋다. 그리고 역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C.C.C.가 그런 것을 강조하는 곳은 아니니까 그냥 견디기는 견디었지만 항상 속에 짊짊한 것이 있었다. 뭔가 시원치 않고 뭘 통과하지 못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C.C.C.는 단순해서 좋다. 사영리만 전하면 된다. 방언이나 이런 소리는 없기 때문에 사역하는 것에 문제는 되지 않지만 그 사람들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생전 처음 C.C.C.에 가서 열심도 내보았다.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 못 되는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열심을 내니까 뭐가 되더라. 생전 처음으로 어떤 목사님을 만난 첫 자리에서 약 10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 목사님의 마음을 바꾸게 했다. 약 10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했다.

그 교회에서 C.C.C.를 나가라고 했다. C.C.C.가 있던 곳이 그 지방 중심교회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C.C.C. 뿐만 아니라 YMCA YWCA RCY 등 그곳에 다 있었다. 그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교회에 덕도 안 되고 시끄럽기만 하여 다 내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때 내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다. C.C.C. 영향으로 내가 충만했을 때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위해서 왔다고 하니 내 이야기를 듣고 앉았더니 '그러면 우리 다시 해봅시다.'라고 했다. 내가 사람을 설득한 것은 생전 처음이었다.

어떤 확신에 차 있고 신념이 있으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다. 나도 생전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내가 6개월동안 대리 목회를 했다. 그것은 아주 기적 같은 일이었다. 감리교, 그것도 150년 정도된 아주 오래된 교회이고 충주 충원 청주 단양의 4개 지역의 모교회이고 중심교회였다. 그쪽 전체가 감리교파이고 장로교는 몇 개 안 되었다.

그런 교회 목사를 10분 만에 움직였다.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그때는 민족복음화에 대한 소망이 벅차 있었고, 내 일생 처음으로 그런 정열이 나온 때였다.

하여튼 충주에 내려가서 엑스플로74를 준비하는데 정말 순탄하게 준비하였다. 그분 교회에서 내가 6개월 동안 주일 설교를 하니 아무도 나에게 뭘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 어디서 왔느냐, 무슨 교단이냐,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그 교회가 중심교회이니까 시골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하면 그곳에서 했다. 요즘처럼 결혼예식장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다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다. 이 교회에서 하도 귀찮으니까 누구든지 결혼식을 하는 것은 좋지만 담임목사를 주례를 세우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는다고 재직회에서 결정이 났다.

내가 대리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내가 주례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남의 교단에 가서 내 일생 결혼식 주례를 처음 했다. 신기한 일이다. 감리교는 장로교와 많이 다르다. 교역자의 권위 면에서 다르다. 자기가 다 결정할 수 있다. 장로교는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자기 혼자 결정을 못한다. 재직회를 열어야 되고 장로들 말을 들어 봐야 된다. 고개는 뺏뺏한데 속에 힘이 없다.

감리교 목사는 건들건들한 것 같은데도 결속하면 힘이 있다. 감리교 목사와 장로교 목사를 만나보면 완전히 다르다. 표면적으로는 장로교 목사가 힘주고 다닌다. 말 붙이기도 어렵다. 실제로 접해보면 아무 권리가 없다.

그때 나는 권세가 없는 분이 권세를 부린다고 생각했다. 권세 없는 사람이 권세 있는 척하지 권세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다. 이 목사님도 여름에는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시내를 돌아다닌다. 그래도 그 교회 목사이다. 그 교회가 그 지역의 중심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 유지가 그곳에 다 모여있다. 교장, 판사 등 다 거기에 모여있다. 그런 교회 목사인데도 시내를 슬리퍼 끌고 돌아다닌다.

권세 없는 사람이 권세를 부린다는 것은 딱 보면 안다. 허세를 부리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허세 부리는 사람은 실속이 없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다. 본질적인 것을 떠나서 사람들은 부수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절대적인 명제이다. 왜 그런가? 예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무엇이 다른가? 다른 위대한 인류의 스승들에 비해서 무엇이 다른가? 특별한 것이 무엇인가? 구별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 때문에 소중하다. 다른 것은 예수 아니라도 다 있다. 구속, 이것이 유일한 사역이다. 이것도 뭘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우리의 구속이 된다. 이 점이 유일한 문제이다.

무엇이 복음인가?

예수 자신이 복음이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가 복음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복음이다.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골1:14).” 죄를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방법이 많다. 회개하라. 기도하라. 방법이 많다. 그것이 어느 종교에 없겠는가? 다 있다.

그런데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골1:14).”는 그것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이니까 구속이나 죄사함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이 아니고 <그 안에서>이다.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바울 서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In Christ>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이다. 방법을 찾아서는 헛일이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닌 것이 3년 반이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그러면 나가서 써먹을 수 있다. 그냥 배운 것으로 한다면~ 다른 종교라면 절에 가서 1년만 굴러도 땡중 노릇을 할 수 있다. 꼭 도를 통하지 않아도 들은 풍월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3년 반을 따라 다녔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이 백지가 되고 말았다. 성경에는 고기 잡으러 갔다고 써있다. 그 사람들이 고기 잡던 사람들이다. 원점으로 돌아가버린 것이다. 3년 반을 따라 다녔는데 아무것도 없이 도로 원점으로 가버린 것이다.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이것이 진실한 말이다.

우리가 3년 반이 아니라 30년을 따라 다녔어도 <그분 안에>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다른 것은 다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은 것이지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다.

방법은 많다. 요즘도 교역자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 다 방법이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교회가 잘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형 교회 목사가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시골 교회 목사가 해 보았자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전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떻게 하면?’이 없다. 구속 사역, 구속 복음을 전하려면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골 1:14).**”는 그분이 있어야 된다.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구속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속함이 되셨다고 한다. 의롭다고 해도 그분이 아니면 의로운 것이 아니고, 거룩함도 그분이 아니면 없다. 이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갈 때 얼마나 허무했겠는가? 베드로가 오죽 했으면 모른다고 했겠는가? 모른다고 하면 다 끝나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했다. 목숨 걸고 법정에 들어가서 끝까지 주의를 해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으니까 모른다고 했다.

왜 모른다고 했겠는가? 다른 일 같으면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할 말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데 너도 그 패가 아니냐고 하니깐 모른다고 했다. 저 사람을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아무것도 모른 것이다. 3년 반을 따라 다닌 역사는 있지만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이니깐 그분 자신을 몰랐다는 말이다. 참 허망한 일이었다.

구속 사역!

이것 때문에 왔으니까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예수님을 굉장한 분으로 생각할 것이 없다. 다른 성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옛날에 한학을 공부하던 분들은 성경을 갖다 주면 이게 무슨 책이냐고 한다. 너무 시시하다는 것이다.

공자님 맹자님 말씀을 들어보면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 많은가. 성경 읽으면 희한한 이야기도 나오고 사람 사는 쓸데 없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 소용 없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은

이야기를 뒷하러 써놓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야소쟁이라고 비웃었던 것이다.

내가 아는 어떤 분도 은근히 무시를 한다. 내가 손님을 데리고 가니까 좋기는 좋지만 은근히 무시한다. 마지막에 무엇이 걸렸는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다. 내가 지금까지 한의사를 여럿 만나보았지만 그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을 못 봤다.

정말 아쉽다. 그런 분을 어디서 만날 수 있다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그분이 아니어도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때는 다른 사람만 데려다 주고 해서 신통한 것도 많이 보았다. 맥을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통하게 보는지 모르겠다.

어떤 자매가 몇 년 동안 기침을 해서 데리고 갔는데, 맥을 딱 짚더니 산후조리를 잘못 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약 몇 첩을 먹으니까 몇 년 동안 하던 기침이 싹 없어졌다. 신기했다.

또 어떤 학생은 공부하다가 애가 탔던지 밤새도록 눈이 벌개도 잠을 안 잔다. 이야기를 다 해놓으면 ‘예 알겠습니다.’하고 드러누웠다가 조금 있으면 90도로 딱 일어나서 똑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 영락 없는 정신병자이다.

그 학생을 데리고 갔더니 진맥을 하더니, 한방명이라 여러분이 잘 알기 어려울지 모르는데, 심옹이라고 이대로 두면 사람 구실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약 먹고 싹 좋아졌다. 병원에 갔으면 그대로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장가도 가고 살고 있다. 그런 명의를 만났는데 나한테는 못써먹고 말았다. 그것이 너무 아깝다.

그분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참 이상한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왜 사람이 없고, 내 뒤에는 왜 사람이 많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이분의 마지막 의문이었다. 자기가 나를 볼 때 아무리 봐도 그런 것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 정도 공부를 하면 관상도 보고 사람을 보면 다 안다. 시시한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는 왜 사람이 많은가?

그분은 아들도 같이 있지 않는다. 너무나 칼칼하기 때문이다. 아들도 재주가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와 만나지 않으려고 다른 길로 가버렸다. 만나면 바늘 방석이니까 누가 가려고 하겠는가. 마지막에 정말 외롭게 돌아가셨다. 마지막에 가보니까 아파트에 낮에 혼자 계셨다. 딸이 같이 있기는 했지만 싫어하니까 입구에 가보니까 짜장면 그릇이 쌓여있었다. 밥해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다.

내가 잣을 좋아하는 줄 알고 잣을 사 갖고 갔는데 잣을 풀어놓고 아무도 없었으면 울었을 것이다. 감격을 했다. 부인 생각을 하셨다. 부인이 오히려 그분 간병을 하다가 죽었다. 그러니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다. 늙으면 자식도 소용이 없고 남자들은 마누라 밖에 소용이 없다.

여자들은 애기도 봐주고 살 수 있는데, 남자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지천꾸러기다. 없었으면 좋은데 하루 세끼 밥해주어야지 빨래해주어야지 되는데, 입이나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잔소리도 많이 한다. 남자는 여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젊었을 때 같으면 집에서 나도 뭐라 하겠는데, 뭐라 하면 나만 손해니까 아무 소리 않는다. 똑똑하다고 영리하다고 사람이 많이 따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른다. 평생 가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른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할 때, 우연히 창조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 노선을 벗어나는 사람은 헛일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알고 보면 이 사람을 사탄에게 유린당한 것이다. 빼긴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만 뭘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부를 줄 알고 유린해 가버린 것이다. 사람은 주인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 목적 안에서 벗어나니까 주인이 없어지고, 엉뚱한 주인이 생긴 것이다.

이것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싱거운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 보내신 자를 누가 믿지 않는가? 당연히 믿는다. 꼭 선문답 같은 이야기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이 사람을 믿는다는 말은 결국 이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일이다. 우리 일이 다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잃어버린 인간을 찾는 것이다. 잃은 드라마를 찾는 여인처럼 사람을 찾는 일이다. 전도하는 일은 사람을 찾는 일이다.

교회로 아무리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게 하지 못하면 헛일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을 못 찾으면 헛일이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사탄에게 유린된 사람을 찾아내는 이것이 구속 사역이다.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그것은 우리처럼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고 일부러 전투하러 나간 것이다. 일부러 마귀와 싸우러 나간 것이다.

그 전쟁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아주 명백하다. 마귀는 말한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배고픈 사람에게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한다.

사탄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 아들의 위치를 자기가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아들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욘기를 보면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아들들은 천사라는 말이다.

천사들은 하나님 아들의 위치에 있다가 사람이 나옴으로써 자기 위치를 빼긴다. 그래서 사람을 그 위치에서 이탈 시켜서 하나님 아들이 못 되게 한다. 자기 종이 되게 한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인간은 종의 근성이 생겼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가면 종의 근성이 생겨서 누가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까? 누가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리러 간다.

누가 시켜서 간 것이 아니고, 누가 요구해서 간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간 것이다.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친아버지 같으면 그냥 가지 않겠는가? 격식과 예식을 갖추어서 선물이라고 싸서 간다. 이것은 벌써 거리가 생겼다는 말이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건너지 못할 강이 생겨버렸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결국 싸움이 벌어졌다.

만일 친아버지에게 가는 길 같았으면 내가 못 가지고 간 것을 남이 가지고 왔으면 더 좋아할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못 가지고 온 것을 동생이 가지고 왔다면 더 좋은 것이었는데, 시기가 나서 죽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종교사에서 볼 수 있다. 종교사에서 큰 자가 항상 언제든지 어린 자, 약한 자를 죽인다. 약한 자가 강자가 되면 또 다시 올챙이 때를 잊어버리고 자기도 그런 짓을 또 한다. 이것은 자기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사고 방식 자체가 그렇다는 말이다. 종교가 있는 한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수 없는 사람이 죽었다.

종교는 스스로 반성하여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약했을 때는 핍박을 받았지만 강해졌을 때는 어떻게 되었는가? 반대로 남을 핍박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다. 강자가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회개할 일이 없다. 자기는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이다.

유대교가 강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해지니까 이방인들을 죽였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종교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간다. 제단 아래서 죽은 영혼들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아벨의 신원하는 피라는 말이 나온다. 아벨의 신원하는 피라고 하니까 호소한다는 것이다. 억울합니다. 약자는 항상 호소하게 되어있다.

약자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 한다는 말이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한다는 말이다. 그래도 문제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강제로 못하게 만들어놓았다.

이태리에 가면 옛날에는 하나였는데, 바티칸 시티와 이태리가 구분되어 있다. 왜냐하면 무솔리니가 나와서 바티칸을 독립시켜 버렸다. 영역을 줄 테니까 떨어져나가라고 했다. 바티칸 시티는 독립된 나라이다.

그 옛날의 영화를 누릴 때를 비교하면 얼마나 초라한가. 바티칸 자체가 못하니까 무솔

리니가 해버렸다. 그것이 미국까지 가서는 정교분리가 되고 헌법에 명시하여 정교를 갈라놓도록 했다. 돌이 붙으면 안 되니까. 돌이 붙으면 사람을 죽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은 국교가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사람을 다 죽인다. 국교가 되면 목사들이 얼마나 활개치고 다니겠는가? 사람 죽이러 다니는 것이다. 핍박을 받을 때가 순수하지 득세하고 나면 거만해진다.

이런 인간을 사람에게 맡겨놓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다닌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온다. 드라마를 찾는 것이나 아니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마음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 노선을 따라 가보면 가인이 죽인 아벨,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대신에 셋을 주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구속 사역의 시작이다. 대신 주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을 주었다. 바다에 떠내려가는 속에서 세 아들을 주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것이 모두 구속 사역의 한 줄기이다.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게 했다. 알고 보면 다 같은 혈맥이다. 셋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다 같은 계통이다. 한 계통이다. 그들을 알려면 그 계통에 서야 그분들을 알게 된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셋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이 사람이 왔는지? 그 노선에 서야만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아벨이 죽으니까 셋을 주었다. 죽은 다음에~ 노아에게 세 아들을 주었다. 다 멸망한 자리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이삭을 주었다. 대표적인 일이다. 왜 하필 100살에 주는가? 아브라함이 낳을 만 할 때 주면 좋지 않은가.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다. 낳을 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도와주자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다. 우리가 돕는다고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다.

역사적으로 서로가 대립되어서 지금 골칫거리다. 이스마엘 족과 이삭 족이 싸우는 것이다.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지금까지도 두 족속이 싸우는지 모르겠다. 그때 하고 말았으면 옛날 이야기로 끝날 것인데 지금도 계속 그렇다.

이삭 족속들이 하는 짓을 보면 옳지 않은 일들이 지금도 너무 많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보면 너무 또 이상하다. 2천년 동안이나 땅을 비우고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이 자기네 땅이라고 돌아오는가? 세상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다.

우리가 지금 만주를 우리 땅이라고 찾을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들어가서 오히려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간 것이다. 옛날에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가나안 칠족을 멸하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들어갔다. 꼭 마찬가지다.

1945년에 회복해서 들어갈 때도 군대를 이끌고 들어갔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쫓아냈는데, 지금이라도 팔레스타인에게 땅을 나눠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 정말 어저지다. 이것을 UN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UN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이다. 어찌할 수가 없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다.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끝났을 때, 불가능할 때, 아무 가능성이 없을 때 주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사람 같으면 조금이라도 힘이 남을 때 해야지 다 죽은 사람을 놓고 아들을 낳으라고 하면 그것이 어찌 되겠는가. 말이 안 되는데 100살에 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다.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니,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진다. 그것이 어느 단계까지이지 100세까지 가면 믿음으로 의롭다 한 것도 없어지고, 믿음의 조상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말아버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는가? 전혀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사라도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했다. 노인네인지 시대가 좋아서 그 나이에 팔팔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웃었다고 한다.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100세라는 말은 100세도 되고 80세도 된다. 자기한테 가능성이 없는 때 이니까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가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살까지만 가도 될 사람도 있다.

나는 자기 문제로 고민해서 잠 못 자고 하는 사람을 보면 잘 한다 잘해, 힘 있으면 더 해라 더해, 라고 한다. 힘이 없으면 못한다. 고민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 한다. 내가 해보니까 고민할 일이 있으면 오히려 고민을 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잠을 못 자니까.

잠을 못 자면 나는 난리가 나니까 아무리 고민되는 일이 있어도 접어놓아야 한다. 그런데 하도 애를 써서 피땀 싸는 사람이 있다. 고민할 힘이 있으니까 저렇게 힘이 좋은가 하고 생각한다.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하지 힘이 없으면 기도도 못한다. 구할 만한 조건이 조금 있어야 구해지지 구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으면 구할 수 없다. 누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할 때에 왜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지금 자서전을 쓴다고 쓰고 있는데 500 페이지 정도 썼는데 그 중에 한 항목도 내가 기도했다는 데가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읽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기도를 할 수 없어서 못했다.

날짜가 있어야 하지, 기도할 무엇이 있어야 하지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내가

생각해도 전혀 불가능한데 기도가 되겠는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이라도 뭐가 보여야 기도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번 중요한 고비를 넘어왔는데 넘어올 때마다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 못한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럽더라. 그런데 못 했다.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비밀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나는 결혼을 늦게 했는데 친구들은 20세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만 34세까지 있다가 35세에 결혼을 했는데, 한 번도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그 생각을 하면 나만 괴롭지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래서 아예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제쳤다.

친구들 결혼할 때 다 축하해주고 시기가 난 것도 아니고, 내 사정이 그래서 그런 것인데 어찌겠는가 하고 마음이 편했다. 결혼을 못한다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어찌나,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결혼을 할 때도 그런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젊은 전도사가 교회에 있으니까 옆 사람이 보기에 민망했던지 결혼하라고 밀어 부쳐서 결혼한 것이다.

그래서 이리이러한 사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못 해보았다. 중매할 건덕지가 있어야 중매를 하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다. 너는 분수도 모르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도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겠더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옆에서 밀어 부쳐서 선을 보게 해서 봤다. 봐도 확신이 안 생기고 어찌할지 모르겠더라. 내가 뭐가 있어야 이렇게 해주겠다고 할 것인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장래가 뻔하니까.

징병검사를 할 때 군의관이 병종 불합격을 내리고 나서 내가 돌아서는데 뒤에서 혼자 하는 말이 장가나 가야 할 텐데 했다. 이 말이 뇌리에 박혀서 안 떠난다. 그 사람이 볼 때 장가 가기 힘들겠다는 것이다.

그때 내 체중이 45KG이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겠는가. 갈비짜이었다.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다. 그 생각을 하면 내가 비참해진다. 내가 비참할 일을 왜 생각하겠는가? 그것이 나는 습관이 되었다. 내가 비참할 일은 생각을 안 하기로 했다. 내가 못할 일을 내가 해서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생전 처음으로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다. 생전 처음이고 아주 세련되고 미모도 아름답고 좋았는데 일년 반 만났는데 객지 사람이니까 3~4번 만났는데 하여간 내가 정신이 훌쩍 빠졌다. 어느 날 갑자기 편지가 왔는데 결혼하게 되었다고 편지가 왔다. 통보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분노가 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구나. 그래 잘 가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더라. 내가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여자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건강이 있는가, 돈이 있는가, 학벌이 있는가. 아무

것도 없는데 뭘 보고 결혼을 하겠는가? 오히려 지금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결혼하자고 붙었더라면 큰일 날 뻔 했다. 그 사람의 기대를 어느 정도 채워주려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내가 무슨 수로 하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나중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떠나준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그 뒤로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다른 사람도 생각이 안 되고 더 예쁜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그것도 참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니까 뭐가 좀 있어야 하지 전혀 없으면 못 한다.

100살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졌다.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와서 말해도 저것을 말이라고 하나, 속으로 이랬을 것이다.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마리아가 신성한 여자가 되어서 그리 된 줄로 천주교가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그렇지 마리아가 오죽한 여자였겠는가. 그때는 결혼 전에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로 쳐서 죽어야 한다. 그것은 아예 살 여지가 없다. 율법에 따라서 그냥 죽어야 한다. 그 아기를 낳은 것이다.

오죽해서 그것이 되겠는가? 자세한 사정까지는 모르지만 오죽하면 결혼 전에 임신을 했겠는가? 요즘은 결혼 전에 임신을 해서 오면 대환영이다. 며느리 될 사람이 애기를 가지면 시부모들이 아주 좋아한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애기를 갖는 것보다 미리 다 만들어서 오니까 훨씬 경제적이고 좋다.

우리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다. 결혼 전에 임신을 했는데 부모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분의 아들이고 성공회 나가고 있는 분들인데 흠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해서 어쩔 줄 모른다. 자기 아들이 아기 만들어 왔다고 대견한가 보다.

사라가 100살에 아기를 낳았을 때 자기들 속으로는 너무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 뒤로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 이 과정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다 이런 데서 부른 것이지 여유 있는데 부른 것이 아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이다. 무슨 사정이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이런 것이다. 이것이 죽고 다시 남의 전형이다. 죽고 다시 남, 이 노선에 왔다. 죽고 다시 난 노선이다.

나도 할 말 없는 자리에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두말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여유가 있으면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다.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이럴까 저럴까 아주 복잡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보고 우유부단하다고 하는데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고 여유가 있어서 그렇다.

여유가 있으면 우유부단해지는데 급하면 전혀 우유부단해지지 않는다. 급할 때는 아주 급하다. 그 길 밖에 안 보이면 나는 번개처럼 일어나는 사람이다. 그런데 조금만 여유가 보이면 재느라고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재게 된다.

나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직감적으로 보였을 때는 이것이 맞는데 여러 번 생각해서 한

일은 맞지 않는다. 이 말은 여유 있을 때 생각한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여유 없을 때 보이는 것은 그것이 틀림없이 맞다.

사람이 여유가 없어야 나는 되는 사람이다. 나는 여유를 주면 안 될 사람이다. 물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여유 있으면 잘할 수 있는 것인데, 여유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여유 있으면 못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 가신 것 같다.

예수님을 한 마디로 말하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다.

예수는 무엇을 했는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뭐가 다른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것이 다른 것이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다. 셋부터 나왔다. 아벨이 죽고 셋이 왔다. 이것이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길이 바로 이 길이였다. 이렇게 밖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해서 나간 아담 안에서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다시 찾아올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다른 것으로는 찾아올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천 년인지 2천년인지 모른다. 수천 년을 이렇게 지나와서 죽고 다시 산 것이다.

죽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놓았는데 뛰어내려버리면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 일이 망쳐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는 아예 거기 들어올 수 없다. 만일 뛰어내렸으면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없다. 이 노선이 아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혀가지고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겼다. 예수님이 왜 뛰어내리지 못하냐는 것이다. 뛰어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안 뛰어내린 것이지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어 버렸다.

어느 것이 정상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뛰어내리는 것이 정상인가? 죽는 게 정상인가? 어느 것이 정상인가? 투표를 한번 해볼까? 잘 생각해봐라. 아니 예수가 죽어? 십자가에 못 박아 놓는다고 못 내려와? 아니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였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왜 못 뛰어내려? 이렇게 세뇌가 되어 버렸다.

이방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당연히 죽지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 텐데 기독교인에게 물으면 의문이 생긴다. 대번에 그 말을 듣고 의문이 생겨서 저 사람 이상한 소리한다고 한다. 누가 이상한지 알 수가 없다.

나는 말했다. 이보다 쉬운 길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보다 어려운 길이

없게 돼 버렸다. 이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 검은 것을 보고 희다고 하고, 흰 것을 보고 검다고 하게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구속해 내겠는가? 그래서 셋부터 시작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좋은 말로 해서 될 것 같으면 뭐 하러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는가. 조선말로 해서 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겠는가. 말로도 안 될 일이고 뭐로도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골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을 골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연출가들이 배역을 정할 때도 관상보고 행동을 보고 여기에 딱 적임자인 사람을 뽑아서 그 자리에 놓는 것이다. 하나님도 연출가다. 유명한 연출가다. 딱 맞는 사람을 골라서 한다. 지원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징병을 한다.

연출가가 지망생이 얼마나 많겠는가? 다 서로 해보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다 시켜주면 되겠는가?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연출이 다 버린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중에서 찍을 사람을 찍어서 쓰는 것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이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움직이는데 아무나 불러놓으면 되겠는가? 안 된다. 또 많이 했는지도 모르고, 효과가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되었는지도 모른다.

아주 정확한 사람을 불러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불러서 믿음도 있고 다 있는데도 이 사람은 마지막에 안 될 때 불렀다. 그 믿음이 좋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면 아주 종교가 그럴듯한 종교가 되었을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왜? 그래야 좋은 종교가 된다.

믿음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했다고 하면 이것이 종교가 이상해져 버린다. 종교가. 종교가 허물어져 버린다.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 아브라함을 다시 만들어 버렸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단계가 저 밑에 단계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려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이 한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때 무슨 행위로 한 것이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지금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어 있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주 최상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최상의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저 밑에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삭을 주었다는 것이 최고의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것은 버리고 중학교 1학년쯤 되는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세워놓았다. 왜? 그렇게 해놓아야 종교가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교가 되지 않는다. 통계적으로 보다 더 보수적이고 보다 더 고지식할수록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한다. 백세계 돌려야 교회가 잘된다고 한다. 그냥 느슨하게 놔두면 다 나가버린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가만히 놔둬도 남아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은 내가 버릇을 잘 못 들어서 뻑센 곳에 가면 못 견딘다. 헌금도 세계 강조하고 새벽 기도도 세계 강조하고 하여간 세계 해야 사람이 모인다고 한다. 그런 종교가 잘된다. 단순하고 명료하고 세계 해야 사람이 자기 자존심이 생긴다. 보람이 생긴다. 교회 가서 보람이 생긴다.

그런데 가서 말씀 듣고 웃다가 와버리면 내가 뭐하고 왔는지 처음에는 잘 모른다. 이 교회가 뭐하는 교회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 뭘 하라는 거냐고? 뭘 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뭐하는 교회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뭘 하라고 불러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 본전을 찾으려고 데려다 놓았다. 그 사람 찾아내려고, 살리려고.

구속! 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사역이다. 유일한 사역. 다른 것은 이것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또 가는 과정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필요한 것들은 전부다 이 노선을 향해서 간 것만 남게 되고 나머지 것은 다 없어져버리고 만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려면 500Km나 되는데 오는 길에는 부산까지 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다 없어진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어진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계명도 있을지라도 이것은 결국은 구속의 길로 가는 것이다.

바울이 율법도 그렇게 해석한다. 못 지킬 율법을 왜 주었는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으니~ 아니 못 지킬 율법을 왜 주었느냐는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해석하기를 못 지킬 줄 알고 주었다는 것이다. 지킨다고 하니깐 한번 해보라고 주었다는 것이다. 그 말이 너 잘났으면 해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말로 소박하게 해석을 하면 '응. 그래? 너 한번 해봐라.'하고 주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광야의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우글거리는데 법이 없으면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바울은 해석을 그렇게 했다. 못 지킬 율법을 왜 주었는가? 네가 잘난 척하기 때문에 주었다는 것이다. 네가 잘난 척하기에 준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인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다. 그 율법을 감히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위해서 모든 다른 것을 다 잘라내야 된다.

생선을 잡아서 그냥 먹는가? 비늘도 벗겨내야 하고 뼈도 추려내고 먹는 것이지 좋은 생선 잡았다고 그냥 씹어 먹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생선고기가 지느러미도 있고 뼈도 있는 것은 그 안에 살을 위해서이다. 살만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시겠는가? 살을 지킬 수 있는 것을 합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지느러미 찢어먹고 앉아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살게 해서 맛있는 횡감이 되게 하려고 만들어 놓았으니까 횡감을 먹어야지 뼈가 귀중한 것이라고 씹어 먹고 앉아 있으면 되겠는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긴 주었지만 그것을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울법도 마찬가지로이다. 필요해서 주었지만 그것을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문자가 아니면 말씀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자를 주었다. 그런데 그 문자가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런데 그것밖에 기록할 것이 없으니까 문자로 쓴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놈의 문자를 씹어 먹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한가. 그 문자를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다른 것을 빨아 먹으라고 준 것이다.

사탕수수를 먹어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껍질이 굉장히 세서 잘못 씹어 먹으면 이빨이 상한다. 그런데 그 안에 물만 빨아먹으면 맛있다. 달고 맛있다. 그것을 뽑아서 사탕을 만든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먹었는데 이것을 잘못 먹다 보면 날카롭기 때문에 이빨이 상하고 잇몸이 상한다. 도심지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해도 안 먹어봐서 모를 것이다. 그 안에 달콤한 물을 빨아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안에 달콤한 물을 유지하려면 껍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다른 것을 준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골라 먹어야지 물만 빨아먹지 사탕수수 껍질을 씹어 먹고 잇몸이 상했다고 사탕수수를 욕할 것이 있겠는가.

문자가 아니면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자로 썼으니까 문자를 껍데기로 주었으니까 그 안에 알맹이를 먹어야지 그 놈을 씹어 먹고 앉아서 입에서 피나면서 먹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탕수수의 핵심은 그 단물이다. 생선의 핵심은 그 살이다. 그것을 먹어야지 껍데기까지 다 가지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한다. 고기마다 비늘이 다 다른데 이 비늘이 옳으니 저 비늘이 옳으니 할 것이 뭐가 있는가? 그 고기는 그런 비늘이라야 유지하고 저 고기는 저런 비늘이라야 유지한다. 갈치가 비늘이 없는 것 같지만 비늘이 있다. 그 하얀 것이 일종의 비늘인데 그것이 속에 들어가면 소화 잘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갈치가 못산다. 갈치 살을 위해서 그것이 비늘이 되어 있다.

우리가 아는 많은 것이 그런 것이 많다. 먹을 것 하고 구별해야 한다. 요리사는 그것을 잘라내고 갈라내서 먹을 것만 해놓는 것이 요리사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것도 그렇다. 뼈도 하나님이 준 것이니 먹어라 이러면 안 된다.

못 먹을 것은 추려내고 자기가 먹어보면 알 것이다. 자기가 먹어봐서 안 되겠으면 먹지 말라고 하고 자기가 먹어서 좋은 것만 주어야 한다. 그런데 자기가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고 준 것이다. 자기가 안 먹어 봤으니까 모르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준 것이니까 먹으라 하고 다 먹이는 것이다. 전라도 말로 하면 처 먹이는 것이다.

자기가 안 먹어 봤으니까 먹어봤으면 그렇게 못한다. 자기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먹어 봤으면 그렇게 하겠는가? 껍데기를 벗기고 그렇게 줄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먹어보고 내가 먹어서 약이 되고 내가 먹어서 복이 되고 그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다. 문자로 기록된 것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편배달부지 그것이 사역자인가? 너에게 이른 편지요 향기요, 라고 한다. 우편배달부가 아니다.

옛날에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다. 신학교 다닐 때인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어떤 목사는 강당에 올라가면 성경만 읽고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완전하겠다. 성경만 읽고 나오면 흠이 없고 완전하니까 그래서 그래 볼까 하다가 못했다. 그러려면 사역자가 필요 없다.

사역자가 왜 필요한가? 그것을 요리를 하라고 사역자가 필요하다. 사탕수수에서 즙을 짜서 요리를 해서 그렇게 먹여야 한다. 이것이 사역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그분을 내가 소화를 해야 한다.

엄마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해야 젖이 나온다. 그런데 자기가 안 먹어보고 소화도 못했다면 당연히 젖이 안 나온다. 먹으면 젖이 나오게 되어 있다. 안 먹어서 안 나오지 먹으면 다 나오게 되어 있다. 틀림없다.

그 엄마만큼 나오게 되고 그 엄마의 젖 속에는 신비한 물질이 들었다고 한다. 아기가 클 수 있도록 시간 맞추어서 나온다. 그 애기의 생명에 따라서 첫날 나오는 것이 다르고 둘째 날 나오는 것이 다르고 다 달라진다.

누가 그렇게 맞추겠는가? 누가 그렇게 과학적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가능하겠는가? 양도 그렇고 짐승이 다 그렇다. 첫날 나온 젖과 다음날 나온 젖이 다 다르다. 그 농도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다 다르다. 신기하다. 엄마는 사역자이다. 먹고 젖으로 내니까. 밥을 그냥 비벼서 아이에게 먹이겠는가? 그러면 죽는다.

생콩을 먹여 놓으면 똥으로 나온다. 먹고 똥을 싸놓으면 새가 와서 먹고 또 먹고 똥을 싣는다. 그러면 산에 나무가 난다. 가을이 돌아오면 늦게 서야 수박 넝쿨이 나와서 뻗어 나가는 것이 있다. 추워서 수박이 열리다 만다. 그것은 누가 수박씨 똥을 싸놓고 가니까 늦게야 노지에서 수박이 열리는 것이다.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젖이 복음이다. 그냥 주면 죽이는 것이다. 내가 해 본 것

만, 먹어 본 것만 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먹은 것은 김치밖에 없는데 김치만 먹고 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김치만 먹어도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놓았다. 나는 내가 먹은 것만큼만 내놓으면 된다.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먹은 것만큼만 내놓으면 된다. 내가 맛있게 먹느냐, 이것만 문제가 된다. 맛있게 먹는 것만 내놓으면 된다.

내가 해 본 경험으로는 그렇다. 처음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전혀 모르겠더라. 검은 것은 글자이고 흰 것은 종이라더니 다 아는 말은 아는 말인데 그냥 아는 말일 뿐이다. 쉽게 말하면 먹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는 말은 아는 말인데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고 할 말이 없다.

성경을 1년 이상 많이 보지 않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듣는 데서 양식이 되면 된다. 어느 날 전에 읽었던 성경이 떠오른다. 이 말이구나. 그렇게 알아진다. 그때 뭔가가 살아나는 것 같다.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다. 나도 재미있고, 듣는 사람도 재미있다. 그 전에는 나도 재미 없고 남도 재미가 없었다. 지식을 많이 공부해서 나열하면 말은 되지만 기쁨이 없다. 내가 거기서 걸렸다. 말씀을 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걸렸다. 그렇지 않았으면 모를 뻔했다. 정말 우수한 사람만 만났더라면 내가 개떡같이 하더라고 찰떡같이 알아먹는 사람들을 만났더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전혀 말씀을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답답했다.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런 벽에 부딪혔다. 그때 나는 이*근박사 주석을 많이 보았다. 그분이 상당히 공정하게 써놓았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주 공정하게 써놓았다. 그리고 좋아했다.

그러면 사람들도 나처럼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멍멍했다. 거기서 내가 걸렸다. 왜 그런가? 나한테 달지 않으면 남에게도 달지 않구나. 엄마가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좋은 젖이 나오지 먹기 싫은 것을 먹으면 좋은 젖이 나오겠는가? 엄마가 먹은 대로 나온다. 젖 먹이는 엄마가 얼음을 먹으면 아기가 설사를 한다. 엄마가 먹은 대로 아기가 먹기 때문이다. 찬 것을 먹으면 아기들은 설사를 한다.

우리가 먹고 설사를 하면 듣는 사람도 설사를 한다. 내가 하나라도 정말 맛있고 깨달아서 맛있으면 나도 좋지만 듣는 사람도 복이 된다. 내가 멍멍하면 다른 사람도 멍멍하다. 다른 사람은 점점 내려 간다. 나보다 더 내려간다.

예수는 죽고 살았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이다.

죽고 산 것이 무엇이 되는가? 교회가 되는 것이다. 죽고 산 것이 교회이다. 죽고 살지 않고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여기서 천년 왕국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생기게 되었다. 죽고 다시 산 것은 새 생명이다. 그 전 생명이 소생한 것이 아니고 다른 생명이 온 것이다. 죽고 어떻게 소생하겠는가? 죽으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못해서 확실히 죽은 것이지 뛰어내렸으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다. 야~ 놀랍다. 이것밖에 남지 않는다. 정말 예수는 놀라우신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만 남는데 그것만 남아서 뭣 하겠는가? 우리는 그런 것만 보고 다녔다.

죽어야 산다. 죽은 데서 산 것이 나왔다. 그의 죽으심, 마리아의 죽으심, 아브라함의 죽음, 노아의 죽음, 아벨의 죽음, 다 죽음이다. 내가 나를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었다.

아벨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 경륜을 이루려고 죽었는가? 아벨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다. 힘 없는 놈이 죽는 것이지 스스로 죽는 놈이 누가 있는가?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죽었다. 옛날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 예수는 죽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니까 죽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했으니까 죽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나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 죽으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나겠는가? 내가 살아날 수 있는데 못 살아난 것인가?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을 뛰어내리지 않은 것인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락하셨으면 못 뛰어내린 것이 맞는 것이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때만 해도 사정할 여유가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아직 멀었으니 더 가라는 말이다. 결국은 골고다까지 간 것이다.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 내 생각이지만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예수님도 일말의 기대를 하지 않았겠는가, 이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원체 아버지와 친한 분이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겠는가? 아버지가 날 버리지 않겠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런 점이 다르지 않겠는가? 우리는 아예 포기하겠지만 그분은 그래도 원체 많은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아버지가 보고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다면 무슨 대책이 있을 것 아니겠는가?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마지막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 그것을 보면 이럴 줄 몰랐다는 말과 비슷하다.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라 갈 데까지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 대답이 없다.

웬 일일까? 강도 같았으면 하나님께 욕을 하겠는데, 아들인데 욕을 하겠는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 그 한 말 속에 예수님의 고민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마지막까지 기다렸지만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그것은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죽어야 하기 때문이라면 뛰어내리지 못해야 된다. 죽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놓고 뛰어내리면 되겠는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못 뛰어내린 것이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다.

못 뛰어내린 것이 인간이 생각할 때는 끝났다, 절망이다, 볼 일 다 봤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는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이것이 하나님 일이지 뛰어내리지 않을 수 있는데, 뛰어내리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 일이 안 된다. 하나님 일이 될 수 없다.

예수를 보고 거기서 무엇을 느끼는가? 예수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 아들도 별 수 없구나.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였어도 별 수 없구나. 역시 사람은 죽는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반대자들은 그러면 그렇지, 니가 뭐 별 수 있느냐고 했을 것이다. 제자들이 볼 때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아들로 굳게 믿었는데 별 수 없이 죽는구나. 결국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 알고 신으로 알고 따라 왔는데 결국은 죽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잘못 따라 왔구나 하고 갔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 생각이다. 요한복음 3장 13~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3~16).”고 했다.

자세히 쳐다보아야 된다.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그렇지만 사람 좋다고 따라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로 알고 따라 왔는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분으로 무엇을 못하겠는가 하고 따라 왔는데, 별 수 없구나. 할 수 없이 죽었구나. 우리가 잘못 봤구나. 이런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고 존경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처럼 욕하고 비난하던 사람들 속에서 자기들은 말도 못하고 숨어서 도망쳤을 것이다. 갈릴리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겠는가?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봐서 미친놈 노릇을 하고 왔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그렇지 않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얼마나 비난을 받았겠는가? 이 맹추들아, 인간은 인간이지 무슨 신이라고 쫓아다녔느냐고 얼마나 비웃었겠는가? 그 수모를 당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것이다.

자세히 보라. 하나님은 이 사람밖에 준 사람이 없다. 이 사람밖에 준 사람이 없다면 이 사람을 자세히 봐야 된다. 답이 그것밖에 없다. 자세히 보니까 늦밤을 쳐다보고 살았다. 왜 늦밤을 쳐다보고 살았을까? 우리가 늦밤을 쳐다보고 왜 살았는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해답이 없는 것을 보니까 모세도 모르는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자기에게 대입하여 말씀을 하셨다.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인지 요한이 자기 속에서 그것을 알고 기록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이 얼마나 좋은 말인가! 하나님이 독생

자를 주어서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한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좋은 구절을 찾으려면 이 구절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 앞 절을 빼버리고 멋 모르고 좋아했던 것 같다. 그 앞 절에 중요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빼버렸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고 한다. 압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잡고 붙들어 매어서 축복을 받았다고 가는 곳마다 그런다.

그런데 성경을 한 번 더 봐도 밤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한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로 날아가버리고 없고 나무뿌리 뽑으라는 소리만 계속한다. 자기 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얼마나 좋은가! 그 앞 구절이 없어져 버렸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요3:13).”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지 요한이 기록한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이 말이 없으면 다음 구절이 공허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독생자라고 하지만 독생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그런 믿음은 왜 멸망하지 않는가? 따지고 보면 공허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앞 절이 있어야 된다.

예수를 자세히 보니까 거기는 누가 있는가? 자기들이 신처럼 생각하던 그 사람이 매달려 있다. 저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더 자세히 보면 사람이구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어떤 모양의 사람이었는가? 물론 포도주를 만들지는 못해도 막걸리로 동동주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막걸리에 다시 누룩을 넣고 밥을 넣으면 동동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포도주를 만들지는 못해도 동동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이었다.

나는 그래도 동동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존감이었다. 이것뿐인가? 수 없이 많은 것이 있다. 사람마다 자기가 자기로서 존재하려면 자기를 바쳐주는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정신병이 걸린다. 정신과 환자들은 이것이 무너지니까 자기를 지탱하지 못해서 정신병이 된 것이다. 정신과 환자도 자존감만 살아나면 나올 수 있다. 자존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안 된다.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사람에게 다 있다. 걸핏하면 니가 왜 나를 무시해? 이런 말이 나온다. 제일 불쾌한 것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사람을 무시해보라. 성인 군자도 따로 없다. 무시를 하면 어느 사람도 독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면으로든지 내가 존경 받을 만한 것이 또 인정 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 산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산다.

술을 먹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술이 필요하다. 술을 먹지 않으면 독이 올라와 있다가도 술을 먹으면 풀어져서 희희낙락해진다. 이 사람은 술을 먹지 못하게 못한다. 술을 먹지 않으면 정신병이 걸린다. 내가 경험을 했다.

어떤 형제가 굴 장사를 하는데 코 끝이 발갛게 매일 술이 약간 취해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장티푸스에 걸렸다. 죽을 뻔 했는데 살아났다. 내가 경고하기를 너 앞으로 술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깐 그때부터 술을 먹지 않았는데 정신병이 되어 버렸다. 내가 큰 실수를 했다. 술을 먹어야 할 사람은 술을 먹어야 하는데 나는 율법을 들이댄 것이다. 장티푸스는 장이 구멍이 난 것이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내가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 앞으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장사하는 놈이 매일 술 먹고 앉아있으니깐 정리가 안 돼서 앞에서는 장사를 하는데 뒤는 썩어 나간다. 충주에 있는 형제인데 평생 정신병이 되어 버렸다.

사람은 참 어렵다. 그럴 줄 어떻게 알았겠는가? 앞으로 장티푸스가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있었지만 이 녀석이 술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에게 있었다. 이 기회에 술을 못 먹게 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말했는데, 술을 먹지 않으니깐 정신병이 되어버렸다. 참 주의할 일이다. 한 번 정신병이 걸리면 고치지 못한다. 지금 의술로는 고치지 못하고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된다.

죽고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구속을 완수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구속을 완수하신 분이다. 죽으시고 사신 분이다. 죽게 되었으니깐 죽었다. 뛰어내리지 못하니깐 죽었다. 뛰어내릴 수 있는 곳에 못 박아 놓겠는가?

예수는 확실하게 죽은 것이다. 영지주의나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신이 어떻게 죽겠느냐는 것이 가현설이다. 신이 죽을 수 없다.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인 것뿐이라는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죽지 않으면 나를 포함하지 못한다. 내가 그를 쳐다 볼 때 무엇을 보는가? 나와 같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때는 나와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도저히 합해질 수가 없다. 연합이 불가능하다. 저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가? 이렇게 돼버린다.

감동하고 감격한다. 그러면 종교가 된다. 당연히 경배하게 된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하겠는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가까이 있을 수도 없다. 심지어는 무당하고도 같이 살지 못한다. 흰히 보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같이 살겠는가? 하물며 신적인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살겠는가? 못 산다.

기독교 안에도 사람을 투시한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올까 걱정이다. 유리창 들여다보듯이 보면서 당신 속에 이런 생각하고 있지 하면 어찌 되겠는가? 그런 사람은 제발 오지 않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오면 큰일이다. 행여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동창에 버려야 된다. 그러면 사람과 같이 못 산다.

예수를 다른 데서 만나면 다 나와 다르다. 맞을 데가 없다. 그런데 그 예수를 놓고 기도를 한다. 가까이 와 달라고 기도를 한다. 기도만 그렇게 하지 가까이 오면 사는가? 못 산다. 거리가 하늘과 땅보다 더 멀다. 단지 우리가 존경하고 경배할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와 나는 영원히 거리가 멀어서 연합이 안 된다. 합해지지 않는다.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이 남자가 너무너무 거룩하여 도저히 할 수가 없으면 옷 벗고 살겠는가? 생각해보라. 너무 남자가 거룩하여 쳐다 볼 수 없으면 안 된다. 자기가 보기에 사람도 서로 만만해야 된다. 남자들도 굉장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만 굉장한 사람과 결혼하면 같이 살아지는가? 못 산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가까이 와달라고 하는가? 어떻게 그런 분을 내 속에 모신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그런 분을 내 속에 안고 다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내 속에 예수가 있다는 말은 아예 안 될 말이다.

지금도 나는 내 속에 예수를 찾아내라고 하면 못 찾아낸다. 뜯어봐도 없다. 열어봐도 없다. 못 찾아낸다. 그런데 내 속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기 속에서 생명이 나온다거나 영이 흐른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것이 예수가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것이 있다. 일시적으로 가능하다. 나도 한 번 경험했지만 남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 혼자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 남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해봐야 무엇이 되는가? 아무것도 안 된다. 나도 신기한 경험을 해보았다.

나와 딱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것은 다 벗어났다. 오염이어서 5천명을 먹이더니 지금은 못하네. 예수가 죽은 것은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더니 지금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다. 그 옷이 다 벗어져 나간 것이다.

십자가에 벌거벗은 몸을 못 박아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다 벗어진 것이다. 그 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벗어져 나간 것이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만 남았다.

거기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예수를 만나는 것과 동시에 나 자신을 보게 된다. 그것이 나다. 그때 그 분이 옷을 입었을 때는 나와 달랐는데, 옷을 다 벗겨지고 나니까 그것이 나다. 남이 아니다.

쳐다 보라. 쳐다 보면 산다. **“인지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참 사람이라고 믿어야 된다. 이것이 진짜 사람이구나. 예수님도 진짜 사람은 저것이구나. 핵심은 저 사람이구나.

물위로 걸어갔던 것은 무엇인가? 은사다. 능력이다.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 없어졌다. 그것이 만일 그분 자신이었다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뛰어내렸을 것이다. 하나님은 주신 그분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다. 내

힘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가? 못한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 나온다. 아니면 그런 쓰잘데 없는 소리를 하겠는가? 나는 거기서 분명하게 사람, 싹 다 뽑아내고 엑기스만 남은 사람, 순수한 사람, 참 사람,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한 그 사람이 발견된다. 이 사람이구나. 이것이 진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원래 그런 사람인데 선약과를 먹고 뭔가 좋은 옷이라고 입었는데 알고 보니 거지 옷이다.

아담이 무화과 입으로 몸을 가렸다는 그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무화과 잎이다. 그것으로 간신히 가리고 있었다. 그 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또 입고 또 입고 했겠는가? 계속 또 입었다. 그것을 가지고 나라고 했다. 하도 오래 되다 보니까 인류사가 계속 오는 동안에 계속 그렇게 단장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인 줄 알게 된다. 다른 사람도 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 거기서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어떤 정형화가 되어 버렸다. 나를 모르는 것이다.

오죽하면 불교에서 자기를 찾아서 나서겠는가? 그 사람들도 본 것이다. 나는 아닌데… 계급장도 내가 아니고 구두도 내가 아니고 외투도 내가 아닌데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찾아 나선 것이 불교이다. 나를 찾아 떠나는 길. 빙빙 돌아오면 도로 자기이다.

왜 그런가? 참 사람,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을 본다. 저 사람이 흠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다고 하신 그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나도 그 사람이라면 나도 옷만 벗으면 그 사람이구나. 내가 벗으나 안 벗으나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다. 옷을 입었다고 그 사람이 아닌가? 외투를 다른 것을 입었다고 다른 사람인가? 내 본체는 진짜 나는 그 사람이다. 거기서 나를 발견하니까 마음이 안심된다. 이제는 걱정할 일이 없고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할 일도 없구나. <In Christ, 그 사람 안에>이다.

물위를 걸어가는 사람 안에 나는 없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인 그 사람에 안에는 나는 없다. 위대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나는 없다. 거기서 나를 찾아보라. 있는지? 자기를 찾았다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다른 것을 것을 가지고 자기를 찾았다고 한다. 영적으로 훈련된 자기를 보고 자기라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가 아니다.

못 박으면 죽는 것이 나다. 나를 찾아 돌아다니는 필요가 없다. 뻘히 놔두고 왜 다른 데를 돌아다니는가? 그것을 피하려고 돌아다닌다. 이 종교도 찾아보고 저 종교도 찾아보고 돌아다니는 이유는 피해보려는 것이다. 그냥 이대로 자기가 될 수 없는지를 찾고 있다.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 아니면 신비를 통해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를 그대로 유지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유지해 보았자 자기 본래는 똑같다. 도사가 된다고 사람이 아닌가? 도가 높다고 죽지 않는가? 맨날 노력해도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그 격을 바꿀 수 없다.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것이다. 해탈한다고 하는데 해탈하면 그 사람이 아닌가? 해탈해도 그 사람이다.

석굴암에 있는 부처는 예술적으로도 표현하기 어렵다. 미소를 짓고 앉아있다. 영화시중의 미소를 짓고 앉아 있다. 그 사람이나 십자가에서 못박혀 찡그리고 있는 그 사람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사람들은 영화시중의 미소를 보고 따라 가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 찡그리고 있으니까. 그림으로는 찡그리지 않는 것으로 그려놓았지만 실제로는 찡그린다. 얼마나 아프겠는가? 그 모양을 보기 어렵다. 그 속에 다른 것을 못 보면 정말 징그러운 일이다. 거기에 바로 나를 보게 하는 내가 있다. 내 자리가 주저 앉은 것 같다. 공중에 떠있다가 의자에 앉은 것 같다. 의자에 앉으니까 편안하다. 공중에 떠있다는 것은 얼마나 불안한 일인가?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업무가 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배필을 찾고 있다. 어떤 배필을 찾고 있는가? 그 사람을 찾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할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 모든 것이 전부 이 사람이다. 심령이 얼마나 가난하면 그 사람 같이 되겠는가? 얼마나 가난하면 그 사람만큼 가난하겠는가? 가난한 그 사람을 찾고 있다.

일부러 가난해지려고 하니까 더 우습게 된다. 이미 가난한 사람인데 이미 벌써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우리 형제들은 다 똑같지만 다 버리고 온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굉장한 지위를 놓고 온 사람은 없지만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 다 버리고 왔다고 하면 속으로 우습다. 버리고 오기는 뭘 버리고 와, 버린 것도 없는데 버렸다고 생각한다.

나는 버려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습다. 나는 버릴 것이 없어서 버린 것이 없다. 버리려면 그것도 참 어렵다. 자기 좋은 것을 버리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는가.

내가 감사한 것은 그런 일로 고민하지 않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좋은 것이 많았더라면 버리려고 하면 아깝다. 나는 배수진을 친 사람처럼 버릴래야 버릴 것이 없어서 오라고 하면 훌가분했다.

C.C.C.에서도 이리로 가라고 하면 이리고 가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갔다. 나

는 갈 데가 없다. 가는 것이 좋다. 대구로 가라고 할 때도 두 말 하지 않고 예라고 했다. 그렇게 온 것이 지금까지 살고 있다.

김목사님도 나를 대구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1초도 걸리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놀랐다. 우리 집은 제천에서 양장점을 하고 있었다. 충주에서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해도 기차를 타야 되는데, 거기서 대구로 오려면 기차를 2번 갈아타야 된다. 중앙선을 타고 내려와서 다시 포항선 경부선을 타야 된다. 갈 데는 밤2시가 되어야 집에 도착한다.

그것까지는 몰랐겠지만 우리 집이 제천에 있는 것은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무조건 대구로 가라고 하시니까 나도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김목사님이 멍하여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었다. 내가 C.C.C.에 있는 한 목사님이 내 머리인데 목사님이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니까 대구로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니 그때서야 숨을 내쉬더니 성령을 받아라가 아니고 이목사님 참 큰 복을 받겠다고 하셨다.

분명히 대구로 보내는 것이 나를 좋을 데로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물어볼 필요도 없었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다. 대답하시는 말씀으로 봐서 분명히 좋은 데로 보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복이 되었다.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 나는 버릴 것도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버릴 것이 없으면 아주 편하고 좋은 것이다. 버릴 것이 있으면 얼마나 귀찮은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붙은 것이 많으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힘들지 않게 해준 것 같다.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다.

그가 그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은 나를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그에게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나를 포함시킬 방법이 없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나와 너는 친구라고 백날 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

임금이 신하에게 친구하자고 하면 그것을 곧이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광해군과 허균은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친한 사이였다. 광해군이 외로울 때면 허균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장기도 두고 했다. 광해군은 허균을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었지만 허균을 갈 때마다 신하이지 친구가 아닌 것이다. 친구를 할 수 없다.

마지막 역모에 걸려서 죽게 될 때도 광해군이 아쉬워서 마지막 묻는 말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겠느냐고 하니 허균이 하는 말이 나만 같으면 모르지만 나와 같이 죽기로 한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내가 못합니다. 전하, 나를 용서해주십시오. 그렇게 친한 사이이지만 임금이니까 능지처참하라고 했다. 임금이니까 어쩔 수 없다. 자기가 임금 되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는가? 임금은 임금이고, 신하는 신하이다.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아도 아무리 배워도 물위로 걸어가신 자리에서 친구라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정신이 좀 돈 사람이라면 받아들이지만 제 정신을 가지고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허균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가도 항상 신하 입장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다른 데서는 만날 수가 없다. 다른 자리에서는 내가 포함되고 싶어도 포함될 수가 없다. 기도 한다고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죽어도 보통 죽으신 것이 아니고 뛰어 내릴 수 없어서 죽은 죽음이라야 내가 거기에 포함된다. 뛰어내릴 수 있는데 뛰어내리지 않는 그 죽음 속에는 나는 포함될 수 없다.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 내가 그분에게 포함되려면 꼭 그분은 뛰어내리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라야 내가 포함된다. 잘 생각해보라. 뛰어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뛰어내리지 않은 분이 있다면 존경은 하겠지만 어떻게 포함이 되겠는가? 불가능하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평생 종교생활을 해야 된다. 기도 하고 엎드려서 주여, 주여 하기만 한다.

다시 살으심은 어떤 살으심인가?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다시 살으신 것이다. 그분이 다시 살으심 속에 내가 연합이 된다.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바울이 “**주와 함께 죽었으니 주와 함께 살리라.**”(롬6:8참조)고 말한다. 이것은 믿음이다. 주와 함께 죽었으니까 주와 함께 사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다.

이것을 보고 새 생명이라고 한다.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와 함께 죽은 것은 그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롬6:4 참조) 예수님도 자기 생명으로 다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주어서 부활한 생명이다.

나도 내 생명으로 다시 살은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살았다. 왜? 완전히 죽은 분이 살았으니까. 완전히 죽은 분을 하나님이 인정했으니까. 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면 받을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공연히 나를 인정하겠는가? 뭘 보고 나를 인정하겠는가? 예수 안에 포함된 나를 인정한다는 말이다. 그 안에 포함된 나로서는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이 사역이 유일한 사역이다. 아직 다 모르겠지만 세계에 어떤, 세상에 어떤, 인도자가 있든지 간에 나를 이렇게 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이렇게 가보라는 것이지 이렇게 자기 안에 포함시켜서 자기와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승천하여 보좌우편에 앉으신 분과 한 자리에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스데반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았다. 보았든지 안 보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안에 포함된 것 만으로도 이미 승천한 것과 마찬가지다.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똑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다시 오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계 22:20).**”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주와 함께 우리가 땅 위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이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절로 그 말이 나온다. 이것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

미이다.

어떻게 살과 피를 먹겠는가?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천주교인들은 주일마다 먹는다. 예수가 먹어지는가? 안 먹어진다. 너무너무 높는데, 신부만 해도 자기들보다 너무너무 높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먹겠는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잠 자고 일어나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된 것이다. 그분이 자기 안에 나를 포함시켜 주니까 내가 포함된 것이다. 그분이 함께 사니까 함께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 포함된 사람으로 살면 새 생명 안에 살게 된다. 새 생명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진다.

웃 입고 다니던 내가 내가 아니고 그분 속에 포함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더라도 당당하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가 그 안에 포함되었으니까. 다른 것으로 인정하면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참 재주가 좋다거나 실력이 있다고 하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뻐하고 좋아하고 손뼉 칠 일도 없다.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것이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보면 인정해주면 된다. 나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존경한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하니까. 또 실제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교회 건축이라는 것이 벽돌이 서로 물려있다. 안 맞는 사람이 맞는 사람과 서로 연합이 된다. 내가 어찌하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꼭 나에게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꼭 나하고 있어야 될 사람일 수 있다. 또 내가 없으면 안 될 사람도 있다.

어떤 자매가 내가 없으니까 불안해 하여 네가 지옥에 가면 나도 같이 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 자매가 편안해지기만 한다면... 편안해지면 지옥이 있겠는가? 지옥이라도 같이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나에게 또 이번에 자기와 같이 지옥과 같이 간다고 했다고 다짐을 한다.

먹는다는 말은 내가 된다는 말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내가 된다는 말이다.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이 박히겠는가? 내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 가겠는가? 순교자의 길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 길을 따라 가겠는가?

나는 옛날에 충주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했다. 주님 만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 있다면 나는 못 지겠습니다. 아주 선포를 했다. 그러나 꼭 내가 져야 될 일이 있다면 억지로라도 지우십시오. 자원해서 지지는 못하겠지만 억지로 지우시면 마지막에 가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는 할 것 같았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면 할 수 없이 지는 것이다. 그래도 그 동안의 의리가 있으니까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 못 박는지 아니까 분명히 나는 괴롭지만 그러나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 십자가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밥 먹는 문제도 나는 그랬다. 옛날에 처음 갔던 교회에서 밥 값이 조금밖에 되

지 않았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는데, 불러놓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면 무엇하러 부르는가? 만일 나한테 음식을 끊어버리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간다고 했다. 어디로 가는가? 시장바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끼도 굶어보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다. 예수 안에 포함되면 그분이 책임질 것이다.

벌써 오래되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길가에서 나에게 물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천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그랬더니 다른 말은 못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네요, 라고 했다.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되지 천당이 있으면 뭣하고 없으면 뭣하겠는가? 천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요즘 천당과 천국도 구분을 못하고 있다. 천주교에서는 구분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개신교 목사님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것을 하면 쫓겨난다. 천당이 없다고 하면 큰일 난다.

나에게 묻는 사람 가운데 천당이 없다고 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많다. 나는 천당이 없다는 말은 절대로 한 일이 없다. 내가 모른다고 했다.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없다고 하는가? 나는 모른다고 했다. 가보지 않아서 모른다. 다음에 가보면 알려주겠지.

난들 그런 곳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눈을 감고 숨이 끊어지지 마자 기화요초가 만발한 세계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나는 이번에 죽었다가 깨어나면서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아름다운 집이 하나 있다. 우리 집인데 누가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잘해놓았다. 그런데 우리 집이다. 누가 이렇게 손질을 해놓았나 했는데, 눈을 뜨니까 중환자실이다.

하도 아쉬워서 도로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니까 도로 그것이 그대로 나왔다. 이려고 있다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싶어서 도로 눈을 뜨니까 중환자실이었다.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인가 싶어서 몇 번 해도 그렇다. 눈 감으면 그 집이 보이고, 눈을 뜨면 중환자실이다. 보고 온 것이 그것밖에 없다.

하룻동안 내가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 중 2시간 정도는 숨이 완전히 끊어졌다. 정말 1초도 놓치지 않고 모든 과정이 진행되어서 살았다. 순간순간이 병원에 있지 않았으면 죽었을 사람이다. 그 순간순간을 생각하면 신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맞추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날 그 시간에 그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었다. 조금 더 살라고 그런 모양이고, 오늘 여기도 오라고 그런 모양이다.

2시간이 넘었다. 이틀 할 것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김치현목사가 다 할 것이다. 오늘 하루밖에 못 오고 힘 주시니까 했다.

[기도]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나누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주시기를 원하고 당신의 복음을 온전하고 쉽고 단순하게 만민에게 전파해서 누구도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주께서 저희를 사용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당신의 위임을 주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하고 당신 자신을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말아서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고 당신의 능력을 세상 앞에 알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좋은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이 한 없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